막히면 거룩함을 점검하라

(다니엘 11:1~45)

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막히면 거룩함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막히면 거룩함을 점검하라'

본문은 어제에 이어 다니엘이 본 300년 역사의 환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내용 속에서 한 구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종말을 예언하실 때에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말씀은 종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멸망(滅亡)이란 없어져 버린다는 것으로써 곧 종말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종말이란 꼭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나게 될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좋은 형태로든 나쁜 형태로든 종말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의 사업이 망했다면 사업에 종말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멸망과 종말 그리고 모든 종류의 끝장남의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다'라는 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몸의 멸망도 있고 마음의 멸망도 있으며 환경적인 멸망도 있습니다. 몸의 멸망이란 몸이 죽는 것입니다. 혹은 아직 죽지는 않았으나 건강이 사라지게 된 상황도 몸이 멸망에 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마음의 멸망이란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고 슬픔 괴로움 걱정 번민 불안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환경적인 멸망이란 소원하는 것들과 계획하는 것 성취하는 것들의 멸망입니다. 재정적 멸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예언을 염두에 두자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멸망을 가져오는 원인은 바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곳에 무엇이 서있는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멸망이나 거룩한 곳에 대한 문제를 삶과는 멀리 떨어진 무관한 것으로

서 여기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나 일어나게 될 우주적 종말만을 멸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인간실존의 문제는 이 멸망과 거룩함의 점검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신 후에 16절에서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죽은 사람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곳은 어디이며 멸망의 가증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 청년 시절에는 예배당의 강대상을 거룩한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예배당의 강대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 또한 큰 의미에서 보자면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룩한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외부의 예배당 안에 있다면 거룩함을 생활화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었던 이유는 마음의 구조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 마음의 거룩함을 비추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거룩한 곳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란 다르게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구분될 때에는 좋은 쪽으로 구분되고 나쁜 쪽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구분된다면 거룩함이 아닌 격리가 될 것입니다. 마치 범죄자들을 격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다르게 구분되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좋으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한 곳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본래 거룩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최고로 좋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으니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치고 승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승진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구분된다고 하여도 돈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일류대학은 좋게 구분되는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도 최고의 거룩함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한 마음 또한 거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에 멸망이 치닫고 있음을 느꼈다면 먼저 거룩한 장소인 마음을 점검해보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장사라는 영역에 멸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단순히 장사수완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녀의 형통이라는 영역이 멸망에 치달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도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에 가증한 것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에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에도 몸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거룩함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모든 경우에 “내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가, 아니면 내 마음에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가”라는 의식을 가지고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곳이기에 거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 마음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멸망의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삶의 모든 영역을 형통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삶이 불통하고 막힘을 느낀다면 바로 마음의 거룩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멸망, 쇠퇴, 불통, 막힘, 종말은 거룩함의 손상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손상되는 이유는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가증한 것들이란 괘씸하고 증오스러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약 300년에 걸쳐 일어나게 될 역사적 사건들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으로 나타난 일들은 실제 역사와 비교해보아도 일치합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의 시대 이후로 300년간 나타날 왕과 왕조로부터 비롯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나라들의 갈등과 전쟁과 모함과 배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은 네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두드러진 지역이 남쪽의 애굽이었고 북쪽의 시리아 지역의 셀류쿠스왕국입니다. 이 두 왕국이 서로 갈등하다가 셀류쿠스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죽음과 함께 300년 역사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앞선 설교들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행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31절에서 나타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라는 환상의 내용을 실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으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삼위일

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바라보시면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00년의 역사를 전 인류의 역사로 가정해서 그 마지막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끝낸다는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실시한 내용을 뚫고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마치 과일의 껍질과 같습니다. 그리고 껍질 속의 과육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국은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고 인도에는 13억 인구가 있으며 일본에도 1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계의 정세와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들을 과일의 껍질 정도로 밖에는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말살 정책과 같은 정책을 뚫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보시고자 중국의 역사 또한 움직여 가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주목받는 자들은 정치인이나 재벌들이나 연예인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큰 범죄나 저질러야 세간의 주목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자들은 전혀 이들에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 말살을 꾀했으나 그 중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선민들을 보고자 하셨듯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증한 것을 물리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에 가브리엘이 다리오 왕을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천사는 곧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의 역사는 그들이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부산으로 향합니다. 이 기차가 도중에 수원에 서고 대전에도 서지만 부산가는 열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00년의 역사가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기간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수원이나 대전과도 같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300년 역사의 마지막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지만 다니엘로부터 100년 까지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문제의 역사고, 200년 뒤에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말살 정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유대인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써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라고 하였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곧 구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소내에서도 지성소는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

는 싸우다가 흙 묻은 신발로 성소에 난입해 휘장을 걷어치우고 지성소를 모독하였습니다. 이것은 선민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살아갑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성소가 모독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악독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선민들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의 개념과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문제시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개념이 없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세상의 가치들을 닥치는 대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소와 지성소를 짓밟고 모독했던 것과 같은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흙 묻은 발로 들어와서 마구 헤집어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번제단에서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거룩함의 개념이 없는 마음에서는 이와 같은 부정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번제단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세상을 들여놓기 쉽습니다. 돈을 생각하는 동안 마음은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음에 돈이라는 이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움임을 깨달아야만 번제단에서 죽을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에 돈과 사업이 가득 차 있는 동안에도 이것을 더러움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번제단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의 거룩함을 점검하여 하나님이 계신지 세상이 들어와 있는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본래 거룩한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을 모셔 들이면 하나님이 사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자녀문제, 돈문제, 사업문제 등 마음에 가증한 대상들을 담는다면 그것들이 모두 성전을 모독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처럼 작용합니다. 그들이 지성소를 짓밟았듯이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은 세상에 가증한 것들에 의해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익숙해져서 더럽다고 여기지 못한다면 번제단은 의미를 잃고 깨끗함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예배를 드려도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더러움의 연장이 됩니다.

마음에 사업문제가 들어온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돼지를 잡아 돼지 피로 번제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단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는 소중한 은혜이지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소중한 은혜이지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싶다면 마음의 거룩함이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게 구분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만이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마음이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때에만 배우자와의 관계도 비로소 온전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때에 사업 또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향해 갈 것입니다. 마냥 성공하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어떻게 되든 마음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32~35절을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저항하는 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몸부림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은 깨끗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왕의 식탁에 올라간 진미들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서가 마무리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근본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역사에서는 반드시 악이 발생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2차에 걸쳐 애굽을 침공할 때에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분할된 애굽이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3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발흥하는 로마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그러자 그 실패를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펼치게 됩니다. 분할된 애굽까지 통일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졌지만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악은 인간 자체 내에서 발생하여 삶의 추진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악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선민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심입니다. 거룩함과 깨끗함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방인들은 더러움의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듯이 종교생활을 해도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어떤 대상을 담더라도 더러움의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더럽혀진 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처럼 멸망의 가증한 것이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멸망의 가증한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더러운 존재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할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온 이삭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됩니다. 나인 성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었으며,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또한 멸망의 가증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통해 재물이 유지되고 더욱 늘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마음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들어와 거룩함이 상실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이 막히고 불편하면 먼저 마음의 거룩함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사업이 안 될 때에 사업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점검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사업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존재하는 한 평강은 유지되고 평강의 상태에서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들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75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아가는 지구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깎아서 버리시는 과일껍질이 아니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과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번제단을 바라보는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대상들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가증한 것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모독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개념이 없다면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도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여 십자가 생활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거룩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하는 곳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옴을 발견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함이 손상된 나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마음에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평강이 넘쳐나는 놀라운 경험을 매 순간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서는 모독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가 들어올 때마다 마음을 점검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온갖 보배로운 생각들이 삶에서 실현되어 나갈 것입니다. 삶이 막혔다고 생각된다면 거룩함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의 75억 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와 대한민국 오천 오백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말살 정책을 뚫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